



✓ 진로교육 바로 알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배우’라는 직업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요? 연극배우에서 영화배우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영화배우 임원희 씨의 진로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배우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그럼에도 배우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영화가 잘 안될 때는 ‘난 이제 영화를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좋은 결과는 잘 보이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은 잘 보이지 않으니깐요. 그런데도 계속 배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Q. 유명시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시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A. 연극배우를 하다가 영화를 하겠다고 극단을 나와서 1년 정도 쉬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시기보다 “잘 먹고 다녀라” 한 마디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어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연극영화과 선배로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몇 년 전에 연극영화과 특강을 나갔다가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떠요?”였거든요. 학생들은 배우가 될 생각보다 뜰 생각만 하고 있던 거죠.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 전에 ‘내가 연기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배우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발성부터 감정 몰입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유명한 배우는 유명세만큼 뒤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배우나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는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나요?

A.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평탄한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꿈이 배우라면 학부모님께서도 그저 자녀를 믿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70회)

✓ 진로상담, 똑..똑..



수시에 떨어져 낙심이 큰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Q 고3 딸이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후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낙심이 큰지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취업이나 하겠다며,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롭습니다.

A 낙심이 큰 자녀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불리 조언하거나 다그치기 보다는 자녀가 힘들어 하는 이 시간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이런 우울감이 자칫 장기적으로 이어질까 염려되므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면 가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진로 대안을 함께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수시모집에 떨어졌다고 해서 대학 진학의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일단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도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남은 기간 학교 출석을 잘 하도록 격려해주시고, 만약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다면 학교의 출결 상황이 성실함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이 힘들더라도 지금 이 시간 또한 소중히 사용해야 하는 값진 시간임을 알려주며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여행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얻어요” - 노미경(투어컨덕터, 세계여행전문가)

■ 책에서 세계 여행의 꿈을 찾았어요

미경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깃불이 들어올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텔레비전도 없었고 딱히 놀이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길고 따분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는 책을 읽는 것뿐이었다. 미경 씨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읽으며 세계 일주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 태국·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서유럽, 동유럽 등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150개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그녀는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

■ ‘경험’으로 ‘미래’를 선택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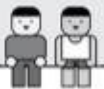
“여행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미경 씨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도 보인다고 했다. “가우디의 구엘 공원과 성당을 보면서 건축가의 꿈을 갖거나 디자이너로서의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유엔을 보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여행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취미로 시작한 여행을 이제는 전문적으로 돈을 벌면서 다니고 있다. 여행사의 인솔자로서 여행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투어컨덕터(TC)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다. 투어컨덕터는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 투어컨덕터는 여행과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투어컨덕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여행 중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몸이 건강해야 한다. 여행 중에 병이라도 나면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행객들에게 짐이 된다. 셋째,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러 언어를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영어만이라도 수월히 해야 현지에서 고생하지 않는다. 미경 씨는 앞으로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관광 분야)

✓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지난 방송도 챙겨 들어보세요!

최근 한 가지 자원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 함께 소비하는 ‘공유 경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사무실’을 통해 공유경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11월 16일	한태정 매니저 (스페이스 노아) “공유경제, 함께 진로찾기!”
11월 18일	한태정 매니저 (스페이스 노아) “첫술로 세계 구하기! 또 다른 진로이야기”
청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스마트폰 : 팟빵 앱, 맘에 쏙 진로 앱,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p>※ 팟빵 앱 다운로드 QR 코드</p>

수능 이후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명칭	수능 이후 청소년 활동 특별 프로그램
일시	수능 후 ~ 겨울방학(2016년 2월)
상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열린 문화축제 (진로체험부스, 동아리 공연, 토크 콘서트) - 5개 국립수련원별로 힐링캠프, 우주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청소년과 명사와의 만남 콘서트 - 연말연시 사랑나눔 청소년 특별자원봉사 - 수능 이후 겨울방학 활동프로그램 정보 ※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청소년 활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및 QR코드	<p>청소년 활동지원서비스 (www.youth.go.kr) >공지사항 >수능 이후 청소년활동 특별프로그램 안내</p> <p>※ 각 프로그램의 지역, 장소, 일시 확인 요망</p> 